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01 + 02
JAN + FEB
2020 vol.4

특집

다문화 사회와 기독교 세계관

청년, 삶을 고민하다 쪽방촌으로의 여정, 그 출발점에 서서
문화로 세상 보기 나그네의 환대, 다문화 사회의 시각 예술
온전한 지성 2019 추계학술대회 주목할 만한 논문 소개(II)

ISSN 2671-8731

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ntents

JANUARY + FEBRUARY · 2020

시선

다문화 현상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위한 절호의 기회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다문화 사회의 도전과 기회 | 신국원 04

특집
다문화 사회와 기독교 세계관

"우리도 어디서든 이방인이다"라는 말은 | 김종철 06

다문화 사회의 교실 이야기 | 박선아 08

선교의 마지막 주자, 난민 | 이호택 10

다문화 사회에 세워지는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 | 노규석 12

사람 사이

신학자와 다문화 사회 문제, 이병수 교수 14

섬김의 자리에서

실패한 섬김의 고백 | 김태황 18

2020. 1+2월호 | 제4호(통권 219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쪽방촌으로의 여정, 그 출발점에 서서 | 탁장한 20

오네시모의 사람값 | 김재완 22

청년, 일터 이야기

사랑을 위한 어리석음 | 홍단 24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다문화 시대의 지혜를 찾아서 | 추태화 26

미술을 보다

나그네의 환대, 다문화 사회의 시각 예술 | 서성록 28

책을 보다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 최은영 30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지침서 | 김유준 32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 유평원 34

아브라함 카이퍼 | 황영철 36

온전한 지성

2019 추계학술대회 주목할 만한 논문 소개(II)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 스트레스와 공감능력,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박정우 38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다움에 대하여 | 김병재 39

월터스토프의 정의론 | 최태연 40

교회 路

더세움교회 기독교 세계관 양육 프로그램 소개 :

시냇가에 심은 나무 | 김지웅 42

수료 소감문 | 이다정 43

소식

사무국 / 관련기관 44

발행일 2020.1.1 **발행인** 손봉호 **편집장** 신국원 **편집실무** 석종준, 윤지혜
발행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S타워 9층
전화번호 02.754.8004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ISSN** 2671-8731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집 02.521.1474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다문화 현상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위한 절호의 기회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종족은 단일 민족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섞이면 더 우수해진다고 한다. 문화도 평화롭게 섞이면 마찬가지다. 가장 뛰어난 고대 문화는 모두 나일, 양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갠지스 등 큰 강가에서 이뤄졌다. 교통수단으로 말보다 배가 더 효율적이었으므로 다른 문화와의 교류가 쉬웠기 때문이었다.

단일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배하면 비판과 수정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문화나 종교도 타 문화나 타종교의 도전이나 그와 교류하지 않고 계속 왕성하게 발전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지금 비교적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의 대종교들이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인데다 최근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다문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향이 되고 말았다.

잉카 문화나 미국 인디안 문화처럼 타문화의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섞이면 상호 절충이 일어나고 지배 문화나 종교의 상대화도 불가피하다. 타종교 지역 선교사들이 주로 도시에서 활동하는 것은 시골에는 전통 종교가 강하게 남아 있어 개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과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세계화가 일어난 것은 기독교 선교에도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문화 간의 경쟁에서는 역시 보편적인 가치가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가 무시하는 문화보다, 양성평등을 장려하는 문화가 방해하는 문화보다, 창조적 활동을 조장하는 문화가 저지하는 문화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어느 것이 더 보편적인가는 종교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서구 기독교적 전통에 입각한 문화에서 형성된 가치들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서양 문화의 지나친 물질주의는 비 서양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서양 자체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서양 문화보다는 보편적인 인류 문화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지 않나 한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은 양복을 입고, 유럽인, 아프리카인은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한다. 한국인은 치즈를, 미국인은 김치를 먹기 시작한다.

문화, 종교, 세계관은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도 시차를 두고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인류보편 문화가 시작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많은 보편적인 가치들을 인류 사회에 도입했고 그들 대부분이 세계화 과정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오랜 기간 폐쇄된 단일 문화를 유지하다가 외세에 의하여 문호가 개방되고 기독교가 전래되어 종교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생존과 번영의 수단으로 국제무역에 주력하게 되고 경제발전으로 외국 노동자들이 유입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의도하지 않았던 다문화 현상을 형성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성공할 환경이 만들어졌다 할 수 있다. 최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외에도 교계 여기저기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감사할 일이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호기를 최대한 이용해야 할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화 변혁은 자연현상처럼 불변하는 법칙에 따라 결정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주체의 의지와 집단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소수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문화의 성격과 물길을 바꿀 수 있다. 민주화 운동, 농촌계몽 운동, 문화개혁 운동, 공산주의 혁명 등 온갖 인위적인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다. 그들은 모두 지역이나 인류 전체에 크고 작은 발자취를 남겼으며, 어떤 것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그 어느 운동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도전과 기회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는 한국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손봉호 이사장님은 기독교적 가치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상호 절충 할 경우 보편적 가치가 우위를 가지게 되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미국무부의 '인신매매 척결 영웅상' 등 여러 상을 받은 김종철 변호사님의 글은 참 따뜻합니다. "우리도 어디서든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악마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풉니다. "어디서 왔니, 너 불법이냐?"는 말이 줄 상처를 알게 하고, "이주민을 체류 자격이나 비자 타입으로 환원하지 않고" 사람으로 보라고 깨우쳐줍니다.

이어진 글들은 모두 다문화 상황을 선교적 시각으로 봅니다. 박선아 선생님은 다문화 교실에서의 선교사적 체험을 통해 얻은 5가지 교육 방안을 소개합니다. "동정을 베풀 도움의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관심으로도 충분하다"가 핵심입니다. 이호택 대표님은 "난민이 선교의 마지막 주자"라고 합니다. 이미 누적 난민 신청자가 6만 명에 육박한답니다. 특히 "닫혀있던 무슬림 선교의 문이 난민선교"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4의 선교물결이며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과제인 이슬람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했고요. 사66:19 말씀에 근거해 난민을 국내에서 사명자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산 온누리 M센터 노규석 목사님은 다문화 사회가 선교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회이며 교회 성장에도 동력이 됨을 강조합니다.

인터뷰 〈사람 사이〉의 고신대의 이병수 교수님도 국제다문화 상황을 연구, 교육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신10:19, 레19:34-35 말씀을 들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인간 존중과 환대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강조하십니다. 인용하신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와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다. 그런데 사람이 왔다"도 큰 울림을 줍니다.

섬김의 어려움이 타자에게만은 아닌 듯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실행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김태황 교수님의 글에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칼럼을 부탁드린 것이 죄송했습니다. 지난 1년 함께 겪은 어려움에 대한 회한은 교수님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섬김'의 지향점은 성취감이 아니라 '소명감'이라는 말씀을 함께 새겨봅니다. 꼭 그 직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많은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탁장한 형제의 쪽방촌 섬김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품는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에 소망과 감사를 품게 됩니다. 김재완 형제는 "백인 다문화 가정은 예능에 나오고, 동남아 다문화 가정은 다큐에 나온다"는 불편한 진실 고발과 함께 그 옛날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러준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중국에서 온 홍단 자매의 글은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자기중심적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위한 어리석음으로 극복한 간증입니다.

추태화, 서성록 두 교수님이 이번에도 특집 주제에 맞추어 영화와 미술에 대한 글을 주셨습니다. 박제욱 감독의 〈러브 인 코리아〉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노동자 이야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선교지가 되어가는 상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서교수님은 미술인들의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만들기와 이주 여성을 위한 카페 활동과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접근한 작품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선교적 함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북리뷰,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성, 계급, 인종의 삼중차별을 넘어선 이주 여성이라는 해석이 돋보입니다. 영어판으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희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가르침"인 희년이 공평과 정의의 표상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그 관점으로 성경과 교회사를 살펴보며 한국교회의 개혁 방향과 실천의 지침을 제공하는 통찰을 줍니다. 북한 출신 유평원 형제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서평은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를 체험을 통해 보여줍니다. 웨슬리 선교사님과 황영철 목사님은 2015년에 한글로도 번역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에 대한 리차드 마우(Richard Mouw)의 책을 소개합니다.

박정우 교목님(광운대)의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와, 가을 학회 수상작인 김병재 형제(성균관대)의 '트랜스 휴머니즘'에 연관된 기독교 교육학적 연구, 최태연 교수님(백석대)의 논문도 이번 특집과 맥을 함께 합니다. 최 교수님은 보편윤리적 기초에서 인권의 개념을 강조해온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정의론'이 개혁주의 신학과 약자 중심의 윤리학의 결합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로〉에 소개된 김천 혁신도시의 '더세움 교회'는 정통령 목사님이 전혀 연고가 없는 '타지'에서 '이주'해온 이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8년간의 세계관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주간 현실 주제를 성경의 눈을 보며 자발적 불편 실천과 독서,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 구현을 훈련하는 50명의 수강생들의 열기 가득한 프로그램입니다.

편집인으로 항상 감사한 것은 깊은 통찰과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글을 써주시는 분들과 헌신된 편집위원들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삶〉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의 새해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캐나다 기독교 학문연구소, 네델란드 자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신앙과 삶〉 편집장과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우리도 어디서든 이방인이다”라는 말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이주민을 악마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있는 난민 등 취약한 이주민과 일을 하면서 “우리도 어디서든 이방인이다”라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베드로전서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카잔차키스(Nikos Kazantzakis)의 〈수난〉이라는 책을 보면 ‘리코브리시’(Likovrisi)라는 마을에 박해를 피해 난민들이 찾아오지만 마을의 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을 배척합니다. 누구를 억압하고 미워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를 악마화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리코브리시의 종교지도자들도 마을을 찾아온 난민들을 자신의 경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자요 역병을 옮기는 사람들로 악마화 합니다. 1950년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쓴 책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든 이방인이다”라는 말은 우리를 찾아온 이방인을 악마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주민을 체류 자격으로 환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동부에 있는 팜스쿨에서 농사를 배우면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팜스쿨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미국 교회에 다녔는데 어느 날 예배 후 점심을 같이 먹던 교인이 저에게 처음 말을 걸면서 “너 불법이냐?”(Are you illegal?)고 묻더군요. 동양인 남자가 가족 없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혼자 교회를 다니니 체류 자격 없이 일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물론 내가 오늘 교회 오면서 교통신호를 몇 개를 위반하기는 했는데……그러는 너는 합법이야 불법이야?” 제가 이렇게 되묻자 그는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크고 작은 불법을 저지르고 살았겠지만 아무도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자신에게 ‘불법 사람’이냐고 물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에게 저에 관해 말해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제가 외국인인지, 외국인이라면 체류 자격이 있는지 가장 궁금했나 봅니다. “우리도 어디서든 이방인이다”는 말은 우리를 찾아온 이주민을 체류 자격이나 비자 타입으로 환원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 “너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거 같은데”라는 뜻으로 “어디서 왔니?”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주민의 취약성에 공감하겠다는 것입니다.

팜스쿨에서 외국인은 저 혼자였는데 같이 생활하는 사

람들 모두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친절 때문에 저는 이방인의 취약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안전이 다른 사람의 자발적인 친절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언어의 유창함과 민족적 동질 그룹이 없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멀지 않은 과거에 난민이자 이방인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의 강점과 한국전쟁과 독재정권 밑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어디서든 이방인이다"라는 말은 역지사지하면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인의 취약성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시민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선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동창을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동창은 제가 지금 공익변호사로 살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와 달리 저의 부모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오면서 처음에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을 누구의 덕이라고 하니 억울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은 다른 이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지금은 "국민이 먼저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구호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든 이방인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 국적자로 누리는 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이주민에게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냥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태어난 것 말고 한국 국적자가 되기 위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주민을 우리의 선생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즐겨 읽는 작가 중에 줌파 라히리(Jhumpa Lahiri)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책이 흥미로운 것은 인도계 미국인으로 미국 사회와 인도 사회 모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계인으로 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사는 사회를 제대로 비판적으로 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초월적으로 그 사회를 조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 곁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 사회가 우리 가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디서든 이방인이다"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찾아 온 이방인을 나의 선생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APIL) 상근 변호사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라브리 간사(2년), 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4년)으로 일했으며,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을 설립하였다. 2018년 미국무부 선정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을 수상했으며, 한국 라브리 공동체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교실 이야기

박선아 (이담초등학교 교사)

"네 다리는 초콜릿 다리야!" 1학년 친구끼리 놀다가 힘으로 이길 수 없자 토고 출신 위스덤에게 다리 색을 놀리면서 한국 친구가 한 말이다. 1학년 아이들의 교실도 사회의 축소판이다. 차별과 혐오의 시대에 다문화 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한글 교육을 따로 받고, 다양한 문화체험학습에 참여했다. 하지만, 교실에서의 갈등은 한글이 아닌 한국인 아이들이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지 못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2018년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생이 2010년에 비해 151만 명이 줄어든 631만 명이라고 한다. 그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수는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의 국적은 나이지리아, 토고, 라이베리아,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7개 출신국이었다. 다문화 배경도 다르다. 난민 신분으로 입국한 부모가 한국에서 낳아 기른 친구들,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혼인을 통해 출생하여 한국에서 자란 친구들,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와 한국에서 정착한 부모를 따라 중도 입국한 친구들 등 다양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체험 이외에 더 특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전도단(YWAM)출신으로 선교사인 친구와 선배들이 많다. 선교적 마인드로 열방을 바라보며 영혼을 섬기는 것을 열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실에 세계의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것이었다. 아이들과 부모들을 바라보며 가르칠수록 신이 났다.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라 건강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혹시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민간외교관이 될 이들로 여겨 한국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편 함께 지내다 보니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내가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나고 자란지 오래되어 한국말을 잘하고, 학습능력과 개

별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비교적 많았다. 부모님도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도 많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 학위를 위해 입국한 유학생, 무역업을 하는 사장 등 다양했다. 자세히 바라보면 다문화 가정인가 아닌가에 따라 아이들이 좌우되기보다는, 가정에서 부모의 관계와 역할에 따라 아이들이 좌우되었다. 실제로 위스덤을 괴롭힌 아이들도 가정폭력에 시달린 한국인 아이였다. 그래서 다문화의 시각보다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서로 이해하며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을 맞이하는 다문화 사회의 학교는 다문화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길 제안한다.

첫째.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인으로서, 또 다른 부모의 나라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든지, 단지 한국에서 자랐든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자랐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한국인이라는 증명인 것을 일반 학생들과 함께 확신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문화와 또 다른 부모 나라의 문화를 체험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한국 학생들과 함께 평화롭게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폭력 대화와 공감 서클 등 평화와 인성 교육에 힘써야 한다. 편견 없이 바라보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풀 수 있는 대화의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특수학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을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 구성 운영하고, 학급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반영하여 꾸준히 다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몇 시간 동안의 반짝 교육으로 생색은 낼 수 있지만, 태도와 습관 형성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안에 다문화 특수학급, 일반 특수학급, 보건실, 복지 상담실 등이 학급의 다문화 가정 아이를 유기적 ·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나,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부모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다각적인 면에서 돌봐야 한다. 한 아이를 학교 차원에서 관리하되, 학교 구성원들의 통합적 관리는 담임교사만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이를 안전한 사회로 진출시키기 위한 큰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다섯째, 학교 밖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 각종 지원단체와 손잡고 함께 아이 뿐 아니라 아이의 가정을 돌봐줄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복지 시스템으로 아이뿐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줄 수도 있다. 또한 난민 신분의 경우에는 아파도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참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따라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스투게더'(Youth Together)의 긴급 지원비나 지역의 깨어있는 복지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친구들은 동정을 베풀 도움의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관심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그들의 부모의 피땀으로 월급 받는 교사이기 때문에, 열방에서 왔든, 이 땅에서 자랐든 내게 보내주신 교실의 아이들을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교육철학이다.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은 특정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선아

동두천의 이담초등학교 교사이다. '좋은교사' 회원이고, 지난 22년 동안 초등학생을 가르쳤으며, 수업디자인 연구소 내 '이야기가 있는 교실 연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최근 '좋은교사 X-프로젝트'로 〈네 다리는 초콜릿 다리야!〉라는 '교실속 다문화 이야기'를 다룬 책을 펴냈다.

선교의 마지막 주자, 난민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땅이 진동하고 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을 뒤흔드셨던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아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고 하셨다(히12:26-27). 중동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가 흔들리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난민은 전쟁이나 박해 때문에 자신의 출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들이다. 2018년 말 현재, 세계에는 7,080만 명의 강제적 이주자들이 있는데, 이중 4,130만 명은 자국 내에서 실향민이 되었고, 2,590만 명은 타국에서 난민이 되었다.

그간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난민 문제가 2018년 5월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 예멘 난민을 계기로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도 큰 논쟁이 되었다. 국제사회가 난민을 보호하는 기본 틀은 1951년 '난민협약'과 '유엔난민기구'(UNHCR)인데,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년부터 독립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9월말까지 25년 동안 한국의 누적 난민 신청자는 59,674명인데, 2018년 한 해 동안의 신청자가 16,173명일 정도로 최근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의 출신국은 파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이집트, 러시아,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시리아, 네팔, 예멘, 말레이시아, 모로코 등이며, 2018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신청국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다.

최근 난민 신청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파키스탄, 이집트, 시리아, 예멘, 모로코, 이란 등 이슬람권으로부터의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난민의 증가와 무슬림 난민의 유입에 관하여 한국 사회와 교회가 적지 않은 우려를 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동과 유럽에서 난민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APEN(Arab Persia Europe Network) 선교사들은 무슬림 난민들 안에서 큰 영적 부흥과 추수가 일어나고 있으며, 1,400년 동안 닫혀있던 무슬림 선교의 문이 난민 선교를 통하여 열렸다고 보고하고 있다.[1] 2019년 10월 21일부터 2주 동안 APEN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와 신학교 등을 순회하면서 세계 난민 선교 동향을 보고하였는데, 보고의 핵심은 난민 선교는 해안 선교, 내지 선교, 미전도종족 선교에 이은 제4의 선교 물결이며,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과제인 이슬람 선교를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다.[2] 아랍세계와 중동의 진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유럽과 세계에 흩으시어 친히 선교하시고, 한국에까지 난민들이 찾아오게 하시어 우리에게도 이슬람 선교에 참여하는 책무와 특권을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는 더욱 더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인데(마 24:6-7), 이 재난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선교의 목적과 연결된 재난이다(마 24:14). 이 마지막 때 출산의 시작을 알리는 산통(産痛)과 같은 신호가 재난이요 난민이다(마24:8).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되, 그 가운데 도피한 난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뭇 나라와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난민 선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사 66:18-21).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난민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난민출신국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로써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여기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 난민은 박해의 위험으로 황급히 집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문서조차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장차 출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미래의 사실을 예측하여 한국어로 증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은 세계 모든 난민 출신국에 관한 선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자료조사나 면담을 통하여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다. 교회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출신의 난민들을 국내에서 만나 사명자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은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땅 끝까지 전파할 선교의 마지막 주자를 세우겠다고 하셨다(사66:19). FAITH & LIFE

1) http://gnpnews.org/archives/52601
2)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jsessionid=E50B52B9171C6F0618F8F9C70604D8F1?c=100&v=143807(2019.11.14. 접속)

글쓴이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Refuge pNan) 대표이다. 서울대 법대(1983) 및 동 대학원(1985, 석사)을 졸업했고, 1994년부터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난민지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피난처를 섬기고 있다. 현재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Pacific 대학원 (Th.M.) 재학 중에 있다.

다문화 사회에 세워지는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

노규석 (안산 온누리 M센터 목사)

2019년 9월, 대한민국에는 245만 명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88만 명의 동포들과 19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16만 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있다.[1)]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에서 온 동포들,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남을 본다. 만약, 우리가 국수주의적 태도로 이주민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추방한다면, 추방당하는 이들에는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후예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온 동포들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시아의 국가들과 공생 관계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가 국수주의적인 태도로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을 내보낸다면, 아시아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그 나라들에서 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에 245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아가듯, 아시아 각국에는 약 4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는 720만 명의 한국계 동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국에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온 외국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우리 정부는 불과 3년 후인 2021년에는 300만 명, 2030년경에는 5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것으로 예상한다.[2)]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는 점차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이주민 교회, 다문화 교회, 유학생 교회는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주민의 증가를 선교적 기회로 살린다면, 우리는 새로운 교회 성장 동력뿐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도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선교적 사명과 열정을 가진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3]을 따라,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적 책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27,000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면서도[4], 막상 우리 동네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2013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이주민 교회 및 선교단체가 불과 500여 곳 정도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6만여 개의 교회 중 1% 정도의 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진정한 세계 선교는 바로 우리 동네에서 시작할 수 있다. 내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다문화 가정들과 차 한 잔, 식사 한 끼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타문화권 선교의 첫걸음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 교회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해외로 찾아가는 것만이 선교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사는 이주민들을 타문화권 선교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적극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또한, 이주민들을 선교의 대상에서 선교의 동역자로서 바라봄으로써,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선교를 시도해야 한다.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고향 가족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에, 복음으로 변화된 이주민들과 이주민 교회들이 선교의 동역자로서 선교지를 함께 섬길 수 있다. 또한, 이주민 역파송 선교사들과 선교지 교회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 네트워크를 통한 융합 선교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선교지에 '교회 개척'(Church Planting)을 넘어서, '선교 개척'(Mission Planting)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2005년에 안산시 원곡동에 설립된 온누리 M센터에는 13개국에서 모인 500~600여명의 이주민들이 매주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 또한 매년 수차례 연합예배를 드리고 선교적 활동들을 함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모자이크 선교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다문화, 다언어, 다민족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적 교회를 안산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 시도를 통해 '행동'(Doing)으로서의 선교 사역(missions)뿐 아니라, '존재'(Being)로서의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주민들을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이고 이들과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 즉 다문화, 다언어, 다민족 교회로서의 '모자이크 선교 공동체'(mosaic mission community)를 이루는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에 대한 시도가 한국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길 기도한다. FAITH & LIFE

1)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19년 9월호), 법무부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7/0200000000AKR20160727075600004.HTML (2018년 3월 30일)
3) 출애굽기 23:9, 신명기 10:18~19, 요한 3서 1:5, 디도서 1:8 등
4)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8493 (2018년 3월 30일)

글쓴이 노규석

안산 온누리 M센터의 담당 목사이다. 성균관대 기독동아리 겟세마네 출신이며, 장신대 신학대학원(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Islamic Study, M.A 수학),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학 박사 과정에서 공부했다. 온누리 교회(TIM 소속) 파송선교사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10년 동안 사역했으며, 2014년부터 안산 온누리 M센터장으로 부임하여 이주민 선교에 전념해 왔다.

신학자와 다문화 사회 문제,
이병수 교수

2019년 11월 30일(토) 오후 3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지난 20여 년 이상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문제를 앞장서서 고민하고 직접 섬겨 온 고신대 이병수 교수를 만났다. 이병수 교수는 고신대 신학과와 동 신학대학원(M.Div),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조직신학 석사(Th.M), 선교학 박사(Ph.D)학위를 받았다. 현재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돕는 '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 소장(2015~), 난민들을 주로 돕는 '선한사마리아인 구호연대' 대표(2017~)를 맡고 있다.

일시와 장소 2019년 11월 30일(토). 오후 3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인터뷰어 박동열 교수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 동역회 실행위원장), **정리&사진** 석종준 (사무국장)

박동열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수 저는 1997년부터 고신대학교 글로벌 교육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과목은 '조직신학', '선교학', '문화인류학 및 세계화',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 사회' 등입니다. 1989년 목사 안수를 받았고, 현재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돕는 '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 소장(2015~), 난민들을 돕는 '선한사마리아인 구호연대' 대표(2017~),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김해 지역의 김해중앙교회에서 주로 외국인들을 돕는 협동목사로서도 2010년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박동열 다문화 사회 문제 관련 사역을 본격적으로 섬기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병수 우선, 제 자신이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982년 대만 국적의 중국인 화교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중국 산동 출신의 비단장사 아버지와 전북 출신 한국 여성 어머니의 결혼을 통해 출생한 여성입니다. 뜻도 모른 채 주변 친구들에게 '되놈'(중국인을 비하하는 말) 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둘째는 미국 유학생활(1988-1996)동안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한국에서 선교사 역을 하셨던 은퇴 선교사님을 찾아내어 돕게 하신 것입니다. 도움은 영어만 아니라 문화생활, 특히 주일예배를 섬기는 것과 옷차림, 명절 때는 맛있는 과자와 선물로 따뜻하게 섬겨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닌 미시시피주 리폼드 신학대학원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유학생 자녀들의 선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1인당 15달러 이하). 우리 장남은 야구 방망이, 둘째는 야구 글러브, 그런데 막내는 "아버지 다른 집에는 자전거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하며 15달러가 훨씬 넘는 것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신청했습니다. 얼마 후 연락이 와서 선물을 준비한 교회를 온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예상대로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첫째 아들 이름 폴(Paul)을 불렀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몰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다섯 대였습니다. 사회자는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은 한 대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섯 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을 받으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가 받은 그 사랑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전하라."

박동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문화 사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병수 2019년 8월 말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국제이주자 240만 명, 미등록 체류자(불법체류자) 약 40만 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을 한 자 22만 명, 다문화 가정 초중고 학생이 약 17~20만 명, 도합 320만 명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6%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넘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자한 재정만 약 130조에 이릅니다. 그러나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한편 현재 재한 외국인 유학생도 급증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말로 약 200개 국가, 19만 명에 이릅니다. 고려대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약 5~6천명에 이릅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교의 기회로 해석합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자면, 첫째, 다문화 사회를 공존과 조화의 사회로 만들어야 하고, 둘째,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성의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셋째,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는 환대의 정신을 펼쳐야 하고, 넷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초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박동열 다문화 사역을 섬기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병수 섬기는 교회의 한 중국인 젊은이가 일하는 도중 오른 손가락 5개가 완전 절단되어 낙심과 실망에 젖어 병원에서 눈물의 나날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병원에 가서 위로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아내가 그가 일한 고용노동청에 갔습니다. 그 젊은이의 어려

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산재보상금을 좀 더 많이 받도록 부탁했으나, 담당직원이 싸늘하게 반응해서 낙심해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음날 아내와 함께 가서 제 신분을 말하고 그 중국 젊은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중국에 돌아가서 당할 어려움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더니, 담당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산재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산재 연금이 그 젊은이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섬긴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들을 신뢰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쌓여가는 신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좋았습니다.

박동열 그렇다면 다문화 사역을 섬기시면서 가장 어려운 감정을 경험하신 때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병수 섬기는 부산의 김해중앙교회에는 한 때 인근에 있는 '송월타월'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출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내는 설날과 추석 때에 그들을 데리고 명절 휴가 기간 동안 섬기기 위해서 전국을 함께 다니는 사역을 하였는데, 정작 저와 세 아들들은 집에서 명절 때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라면을 끓여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넘치는 위로와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세 아들들에게 소홀히 했던 것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박동열 교수님은 우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오랜 정회원이시기도 하신데,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동참하게 되신 개인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병수 과거 학생으로 공부했고, 현재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고신대학교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교입니다. 따라서 첫째, 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칼뱅주의 및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둘째, 미국 유학생활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는 과정에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이고 실천적이고 사회 변화에 적극적인 이유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봉호 교수님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실천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이 세계관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열 오늘 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 한다는 것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병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삶의 전 영역에 구현하는 점에서 그 운동이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원론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지식과 실천이 하나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주체들인 루터와 칼뱅의 학문적 준비와 경건과 영성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 이론과 영성과 경건이 겸비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끼친 칼뱅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전 영역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칼뱅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의 전 영역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합니다.

박동열 교수님의 전공은 조직신학과 선교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로서 다문화 사회 문제에 특별히 현장에서 일관되게 섬김을 이어가고 계시는 신학적 의미도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병수 그리스도인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소외된 자, 낮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은 신학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특별히 다문화주의와 기독론적 선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학자 존 맥케이(Johm Mackay)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방식에 따른 선교'(mission in Jesus Christ)를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죽음의 신학에 기초해야 합니다. 다니엘 밀레오리(Daniel L. Migleore)는 "만약 교회의 선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면 그 활동은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이며, 그럼으로써 주변화된 자들과 낯선 자들, 소외되고 무가치하고 우리를 동요시킬 정도로 이질적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신학에서 강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바로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의 이주민과 난민들입니다. 때문에 한국 교회는 다문화 사회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기독론적 선교의 역할과 그와 관련된 여러 난제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박동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동역회 회원들과 같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문화 사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앞서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해서 힘을 보태야 할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병수 첫째,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신14:28-29). 둘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님도 이집트로 도피한 이주민이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종말의 심판 때 나그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마 25:38).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가 놀라운 선교의 기회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 3,500명 중 3,000명이 추방되었습니다. 인도와 많은 지역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외국인이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기회입니다.

박동열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 문제를 앞서 섬기신 분으로서 우리나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병수 "나그네를 사랑하라"(신10:19)는 성경말씀에 기초한 '이주민에 대한 환대'와 '인간 존중'에 대해 부탁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현종의 시, 〈방문객〉을 환대의 관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그는 / 그의 과거와 /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 이주민 및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환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둘째는 '인간존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작가, 막스 프리슈(Max Rudolf Frisch)의 한 마디 말도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다.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또한 이런 말씀도 있지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레19:34) FAITH & LIFE

실패한 섬김의 고백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리스도인 연구자로서 나의 '섬김'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사실 감히 '섬김'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했다. 물론 실패와 성공의 평가가 자의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객관적 결과에 근거해서 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다고 해서 나의 실패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10여명의 사사를 직접 임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사사기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는 증언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현재 직장인 명지대에서 2008-2009년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을 맡아서 그리스도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전임자 교수가 이 과정을 태동시켰고 나는 5기 모집과 운영을 맡아서 7기까지만 운영하였다. 물론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학교 경영진이 운영 중단을 결정했지만, 나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반 만에 '섬김'에 실패했다. 2년 반 후 학교 밖에서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 동창회 리더들과 개인적으로 8기 운영에 재도전했으나 12기까지 근근이 버티다가 역시 중단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20대 청년구역을 맡아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9여년 동안 섬겨왔으나 역시 실패했다. 내가 맡은 구역 성경모임은 해마다 재구성되었지만 활성화된 적도 거의 없고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선한 영향을 끼친 적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자평한다. 이제 대부분 30대가 되었는데 그 때 그 구역장이라고 기억하면서 연락을 하거나 찾는 청년들이 거의 없는 사실이 이러한 자평의 근거이다.

2015년부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의 실행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은 또 한 번의 실패의 출발이었다. 첫 2년간은 사무국 간사들이 모든 업무를 너무나 능숙하게 처리해 주어서 나는 무임승차나 다름

없이 매달 한두 번 사무국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서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 2월 24일 아무런 전조도 없이 정오 무렵 내가 갑자기 혼미 졸도한 사건을 겪으면서 '섬김'의 역할은 자질 미달과 기회 상실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 동역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오해와 분열과 갈등의 자충수를 자초한 시기에 나는 사무국과 실행위원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먼발치서 방관하고 있어야만 했다. 당시 약 8개월 동안에는 자주 분노와 좌절에 함몰되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섬김'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나는 '섬김'의 희생을 체득하지 못했고 '섬김'의 목적과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동일시했다. 착각이었다. '섬김'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인 점을 몰랐다. 더욱이 그 연결고리는 하나님에 의해 견고해질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부지불식 간에 간과했다. 상황의 흐름은 나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치달았고 나는 '섬김'에 실패했다.

당시 세 분의 선배 동역자께는 나의 정당성(?)을 명분삼아 언성을 높이며 무책임한 발언과 태도를 추궁하기도 했다. 이 지면을 통해 정중히 사과드린다. 동역회 사무국 실무 간사들과도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마침내 사무국 간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동역회를 떠났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당시 실행위원장이었던 나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동역회를 떠난 간사들에게 지금 다시 정중히 사과한다. 2017년 9월 나는 실행위원장직의 책임을 통감하고 중도 사임을 했으며, 당시 부실행위원장이었던 박동열 교수(현 실행위원장)께 대행을 간청했다. 지금도 여전히 박 교수께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처음 인지하게 된 계기는 1994년경 유학 시절이었다. 강영안 교수께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셔서 세 차례 오붓한 좌담회를 가졌는데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Levinas)의 '타자'(他者)에 대한 윤리 개념을 강론하시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일깨워 주셨다. 사이어(James W. Sire)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을 추천해 주셨는데, 흥미롭게 학습하면서 호기심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첫 독서였다. 2000년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생명윤리를 다루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후 경제분과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약 20년 동안 무수한 독서와 토론과 학습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으로 '국제경제학'(국제통상학)을 탐구해 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변방에서 북소리만 울려 왔다. 나는 그리스도인 학자로서도 '섬김'의 자질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섬김'은 일상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마무리된다. 나는 실패한 '섬김'을 초라하게 되돌아본다. 거창한 명예회복이나 굴복하지 않는 재도전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동역자들께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나는 찌그러져 있어야 한다. 내가 다시 어떤 '섬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인지할 때까지 근신하며 기다려야 한다. 나의 새로운 소명이 뚜렷해지기까지는 현재의 일상에 머무르면서 현재의 일상에 충실하려고 애써야 한다. '섬김'의 지향점은 성취감이 아니라 소명감임을 깨달아가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와 파리 제8대학(뱅센느대) 경제학 석사, 파리 제10대학(낭테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앙생활은 프랑스 유학시절 시작되었고, 기독교경제학회와 한국EU학회 학회장직을 수행했으며, 2000년부터 기독교학문연구회에 참여하면서 부회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실행위원장을 역임했다. 100주년기념교회 집사이다.

쪽방촌으로의 여정, 그 출발점에 서서

탁장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스물일곱이라는 늦은 나이에 입대했다. 허투루 보내는 시간을 너무 싫어하는 예민한 성격 탓일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가며 전공 관련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며 군 생활을 채워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어느 날, 〈쪽방, 사람이 산다〉(2015)라는 르포 다큐멘터리를 우연한 기회에 접하면서 이 낯선 공간에 대한 생소한 열망이 촉발되고 말았다. 현대화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1평짜리 쪽방이 가득한 동네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람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내고 있다는 내용이 나로 하여금 일종의 외경심을 갖게 한 것이다. 이후 공부의 방향이 빈민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해방신학과 빈민들의 조악한 거주 공간들로 뻗어 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는 그 공간에 너무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곳 쪽방촌을 다루는 연구를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후임들과 시도 때도 없이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들로부터 쓴소리도 들어가며 간절함은 커져만 갔다.

스물아홉에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하면서 서울역에 자리한 가장 큰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을 나의 공간으로 품어보기로 했다. 솔직히 그냥 들어가기에는 아무런 자신이 없었다. 사실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순진하게 기대해 왔던 바와는 달리 경계심 높은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조차 걸어보지도 못하고 동네 주위만 겨우 서성이다가 돌아오곤 했기 때문이다. 홀로 부딪쳐보겠다는 낭만적인 그림은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상상과 현실은 그리도 이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먹고 이곳 쪽방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복학 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얻었지만, 가난에 동참하는 교회를 만나길 원했기에 쪽방촌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며 진실하게 사역해 온 교회를 너무나도 찾고 싶었다. '노마드'(nomad)로서 수개월에 걸친 검색과 탐방 끝에 작지만 단단한 우리 교회, '소망을 찾는 이'(Hopeseekers)를 찾았고, 쪽방 사역을 함께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부족하나마 내가 할 수 있는 피아노 반주, 그리고 쪽방촌 주민들을 발로 찾아가는 심방을 통해 일주일에 두 번씩,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전달하며 조금씩 소망을 찾아가고 있다. 청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한 발짝씩.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이 흘렀고, 난 여전히 자신이 없다.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 쪽방촌 내에서 공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온갖 구토들과 비둘기 떼의 습격, 주민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폭력과 고성방가, 알코올 중독이나 갑자기 추워진 날씨, 외로움의 영향으로 일상화되는 죽음들

은 좀처럼 쉬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곳을 스냅숏처럼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그런 지저분한 풍경으로만 기억되어 끝내 치워버려야만 하는 공간일 것이다. 그러나 난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쪽방촌 안에 분명히 사람들의 살아 숨 쉬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는 믿음, 겉보기와 달리 사람들이 고통을 공유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

참고로 우리 목사님은 18년째 이곳 쪽방촌과 서울역을 지키고 계신다. 친히 당신을 낮추셔서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대해주시지만, 그분이 감내해 온 세월을 막연하게나마 떠올려보면 그 앞에서 난 감히 어떠한 말도 쉽게 던지지 못하겠다. 그저 침묵하면서 배울 따름이다. 그 오랜 시간을 쪽방촌 주민들, 서울역 노숙인들과 함께하면서도 대형교회에 굽신거리지 않았고, 후원을 위해 억지로 눈물을 자아내지 않았으며, 당당하고도 부끄러움 없이 해 오셨다는 그분의 사뭇 담담한 소신은, 두려움과 눈물이 많고 연약한 나에게도 큰 도전이 된다. 순수하게,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내고 싶다는 오기 또한 생겨난다. 정말 더디더라도 밑바닥에 놓여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된 모습들을 보고 싶다. 예수가 바라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주민들과의 유대감, 곧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나 또한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경험의 초창기임에도, 아니 초창기이기에 격렬한 희로애락을 겪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낯선 청년인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주민, 나를 동생, 아들, 손자처럼 느끼는 분이 아주 적지만 한두 명씩 생겨나면서 덕분에 많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어이없는 가난과 불평등의 상황에 분노가 솟구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내게 요구되고 있다. 부디 초기의 설렘을 지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가 언제일지 기약이 없더라도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지치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의 연구로 선포할 것이다. 이곳 쪽방촌의 가쁘고도 넉넉한 숨결들을. FAITH & LIFE

글쓴이 탁장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집중 관심 연구 분야는 '도시빈민 문제'이며, 서울 후암동의 쪽방촌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소망을 찾는이'(Hopeseekers)의 평신도 사역자이다.

오네시모의 사람값[1)]

김재완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하나의 풍경으로서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우리 모두가 '보는' 풍경인 동시에 '잠겨 있는' 풍경이며,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방금 막 '하나의 풍경으로서 다문화'라고 적은 참이지만 실상 우리 모두는 다문화에 관한 한 '두 개의 풍경'에 잠겨 살아간다. 첫 번째 풍경은 다음과 같은 장면들로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된 해, 초등학생이던 나는 상암동에 살고 있었다. 동네에서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마주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하루는 학원을 가는 길에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외국인이 내게 다가왔다. "아 유 오케이?" 그냥 "오케이 땡큐"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쿵쾅대던지. 겁을 집어 먹고는 그냥 "예..."하고 도망치듯 일어나 내달렸다. 그러고는 한동안 그 사건을 곱씹으면서 한 번 더 외국인과 마주하면 제대로 된 영어를 한 토막 뱉어보리라 다짐했다.

다른 한 편에는 이런 풍경도 있다. 오년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나는 모현면에 살고 있었다. 당시 모현은 이제 막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시골이자 늘 외국인들을 볼 수 있는 동네였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을 지칭하는 '빠끼'라는 말이 있었다. 우리는 빠끼들에게 두려움을 느껴본 일이 없었다. 생각해보면 아주 만만하게 여겼고 깔보기까지 했던 것이 분명하다. 적게 잡아도 우리보다 열 살은 족히 넘는 그들에게 "헤이, 빠끼!"라고 괴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어 대거나, '빠끼'를 가지고 저질스러운 농담을 만들어내곤 했으니. 그런데 잠깐. 나는 아직 이 두 풍경 속 외국인들의 국적이나 외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당신은 첫째 외국인과 둘째 외국인의 외모나 국적을 어떻게 상상했는가? 혹 전자는 백인, 후자는 동남아인이 아니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런 상상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내면에는 다문화를 가로지르는 암묵적인 경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문화나 외국인들에 대해 한편은 경계 이편에, 다른 한편은 경계 저편에 위치시킨다. 한국인들의 머릿속에서 이 둘은 결코 같은 '다문화'가 아니며, 같은 '외국사람'도 아니다. '다(多)'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다문화는 양가적으로 구획된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다문화'는 실상 '다국가의 이중문화'로 내면화 되고 있는 것이다. "백인 다문화 가정은 예능에 나오고, 동남아 다문화 가정은 다큐에 나온다"는 말은 이러한 현실을 잘 꼬집어 보여주는 것이리라.

이와 관련된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다. 우리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 하여 그 모두에게 동일한 '사람값'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 국적과 피부색에 따라 그 사람값을 다르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인간'일지는 몰라도, 같은 '사람'은 아닌 것이다. 인류학자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적 사실의 문제이지, 사회적 인정의 문

제가 아니다.(중략) 반면에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저자의 말을 적용해 보자면 한국 사회는 어쩌면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외국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게 아닐까? 엄밀하게 말해 이들은 언제나 사람 이상의 존재이거나 사람 이하의 존재로만 현상(現象)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한 노예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나는 다문화 현상과 기독교 신앙의 접점을 여기서 찾고자 한다.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아들'(몬 1:10), '사랑받는 형제'(몬 1:16)라고 불러 주었다. 당시 노예는 법적으로나 의례적으로 비인격이었기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지켜야 할 체면이나 명예조차 없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인 셈이었다.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 노예를 향해 아들과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은 상식을 넘는 파격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역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주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가 동등한 호칭을 갖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자아내는 이중적 풍경 앞(안)에서 빌레몬서를 다시 읽는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도처에 있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생각해 본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오네시모들을 찾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네 책임이 아닐까? 바울에게 오네시모의 사람값은 얼마였던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라는 처절하고도 영광스러운 사람값을 갖는다. 이것이 노예조차 가족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은 나를 자녀라고 부르는 신의 사랑을 경험한 데서 온다. 이 사랑의 수혜자들이 모인 교회는 사회 내의 온갖 오네시모와 빌레몬들이 가족으로서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물론 다문화적 현실에서 오네시모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리를 찾아주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섬세하며, 많은 고민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분에 넘치는 사람 대접, 자식 대접 받아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 FAITH & LIFE

1) '사람값'이라는 용어는 신유정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1단지 사람들의 사람값〉(2019)에서 차용했음을 밝힌다.

글쓴이 김재완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으나 1학년만 마치고 휴학 후 현재는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과에서 '도시빈민 문제'를 집중 연구 중이다.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정회원. 2018년 9월부터 예수향남교회에서 행복한 초등부 전도사로도 사역하고 있다.

사랑을 위한 어리석음

홍단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원)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님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캠퍼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3년 차이다. 십여 년 내지 수십 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분들도 많으실 텐데 '벌써'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지난 1년간 정체된 듯 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안타까움을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말이다. 그리스도인 대학원생으로 사는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어 가는 자신의 삶을 감사해 하며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참 많았다. 그러나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부터는 그 이전의 삶과 신앙의 패턴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많은 업무량과 상사들의 높은 기준은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 잦은 야근을 필요로 했고, 신앙생활 관리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마저 부족하게 되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상사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였더니, 이러한 답이 돌아왔다. "우리 연구원에서 개개인의 업무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 연구원의 구조적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장은 이러한 과정이 힘들겠지만, 분명 좋은 훈련이 될 것이고, 장차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말에 기대서만 하루하루를 채찍질하며 걸어 나가기에는 내 어깨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물론 성경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해보았다. 결과는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주님을 닮아 가려고 힘쓰기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아 보이는 형식적 삶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율법주의를 범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주어진 기한에 완성하지 못할 것 같은 과중한 업무량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골 3:23)는 말씀을 떠올리며 어떻게 적용할 지를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 때 개인적 혼란은 법적으로 할당 받은 계약상의 근무시간 안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의 필요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 야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문제였다. 말씀이 전하는 의미의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이 인도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그저 말씀의 형식만 적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는 직장에서 한동안 스스로의 관점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직장 내 조직의 규모와 연구원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리더가 탐욕스럽게 느껴졌고, 실무자의 고충을 잘 알면서도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침묵하는 중간 관리자들 역시 탐욕스럽다고 정죄하였다. 나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타인을 밟는 것이 다반사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철저한 '을'의 입장을 강요받는다고 생각하니, 낙심되고 두려웠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나는 그 때에 이르러서야 스스로 움켜쥔 주먹을 펴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렸다. 그리고 어느 날, 출석하는 교회 멘토의 제안으로 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살전 1:2-3).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랬듯이, 나는 이 말씀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 공동체가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권면과 격려를 해주는 것으로 받았다. 아울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냉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도 주목하게 되었다. 바울의 상황은 분명 억울하고 낙심 될 만한 상황인데 어찌하여 여전히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는 결코 불순한 마음이나 자기 속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스스로를 하나님께 선택받고 인도 받은 자로 굳게 믿었으며, 복음 전도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다는 비전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자였다. 다시 말해서 그가 고통이 수반하는 가운데에서 조차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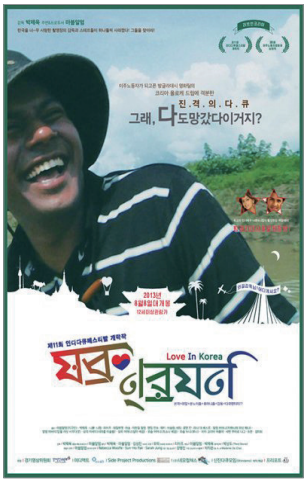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시선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직시하는데 머물러 있었다. 직장 내에서 누군가의 권력욕과 성공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며 가엽게 여겼다. 주님은 그러던 나에게 다시 한 번 "내가 너의 참 주인이고, 필요한 곳에 내가 보냈다. 그 곳이 많이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셨다. 나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비로소 다시 한 번 자유를 누리며, "……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7)는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선포를 감히 하고자 한다. 자기중심적 세상의 관점으로는 오직 주님 뜻대로, 더 낮은 곳으로 기꺼이 향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삶이 여전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단순한 무지에서 기인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위한 어리석음'이기에, 세상의 어떤 '동정 어린'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홍단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원이다. 중국 길림성 출신으로, 광저우 소재 중산대(中山大)에서 회계학 학부, 서울대에서 회계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석사과정 시절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서울대학교회 청년이다.

다문화 시대의 지혜를 찾아서

추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러브 인 코리아〉
(2011, 박제욱 감독)

세상에 이런 일이!

마붑 알럼은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한국에 일하러 온 지 벌써 12년 째. 한국어와 문화에 능통한 반 한국인이 다 된 젊은이다. 그에게 자신의 나라 다카에서 영화촬영을 위해 열 명이 한국에 온다는 연락을 받는다. 마붑은 흥분되고 기대에 들떴다. 정말 고국의 영화배우들이 도착하여 유명 유적지에서 촬영을 시작한다. 얼마나 고무되는 일인가! 그런데 며칠 뒤 배우 3명을 남기고 감독과 다른 팀원은 사라지고 만다.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엽기적인 행방불명 사건을 탐사하다 결국 방글라데시로 날아간다. 그들의 고향을 찾아서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만나며 사라진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과연 뜻대로 될 것인지.

고향에서 낯설기

마붑은 방글라데시에 12년 만에 왔다. 자신이 자란 고향이지만 낯설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남의 나라 같이 느껴진다. 한국이 오히려 고향같이 느껴진다. 왜 그럴까? 고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고향은 누구 말대로 자신이 태어난 곳에 한정되지 않는다. 고향은 자신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다. 누군가 마붑에게 "당신의 고향은?"이라 묻는다면, 그는 대답하리라.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누군가? 언제까지 타국에서 온 이방인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 이주민 자신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이 고향이라 느끼는데 정작 이곳 원주민들은 인정치 않으려 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외국인 혐오발언이 가라앉지 않는다.

코리언 드림의 그림자

한국이 드림의 대상이 되었다. 불과 수십 년 전만해도 개발도상국 명단에 들어있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역이민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에게 물었다. 한국이 좋은 이유? 유튜브 조사 결과 7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 중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연 높은 임금과 사회 안전성이다.

다큐멘터리는 이제 방글라데시로 향한다. 한국에 와서 사라진 이유는 무얼까? 그렇다면 왜 한국에 왔을까? 마붑은 물어물어 그들의 흔적을 뒤쫓는다. 한 가족을 찾았다. 그들에게 한국에 간 자식에 대해 묻자 말한다, "일자리 구해서 잘 있다고 하더라." 한국에 온

이유는 금방 밝혀진다. 그리고는 마붑에게 부탁한다. "제발 고발하지 말라." 그들도 식구가 한국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 체류, 불법 노동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다.

고향에서는 당당한 시민이요 한 가정의 식구로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타국에 돈벌이 노동을 하러 나오는 순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의 경우 피디에게 천만원 이상의 소개비를 준 상태다. 이들의 영화제작은 처음부터 불법 취업을 노린 작전이었다. 코리안 드림의 시작은 이렇게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코리안 드림이 행복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코리안 드림, 그 양지를 향하여

〈러브 인 코리아〉는 감독이 왜 사라졌는지 끝내 미스터리로 남긴다. 한국 어디에선가 불법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지, 불법체류하다 언젠가 강제추방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마붑과 같은 이주 노동자들에게로 돌아가 보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정착한 그들은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불린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인권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차별없이 살아가게 안전장치를 해주고 있다. 이주 노동자 중에서 국회의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럼에도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노동 현장의 갑질 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차별대우 받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그 자녀들을 혼혈아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부끄러울 정도이지 않은가!

이주 노동자들의 선교지, 코리아

유럽 기독교계는 이주 노동자들 중, 특히 이슬람과 같은 타종교권에서 온 이들을 선교적 차원에서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독일 연방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 영주권을 발행해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권에 스스로 찾아온 이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보내신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직은 한국 사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천사처럼 대접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독교계는 최선의 노력과 예의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롬 13:10) 그리한다면 그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출 22: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출 23:9)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나그네의 환대, 다문화 사회의 시각 예술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그림1) 폐교를 이용하여 다문화 카페를 만든 완주 지역문화자산연구회팀의 공공미술작품

외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꾸준히 찾아온 이래 다문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7년, 법무부는 2030년 경에 인구 500만 명의 다문화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각각 전망하였다. 그들은 그동안 타국에서 고충과 역경을 이겨내고 어엿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미술인들의 반응도 더디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한 예로 완주군 고산면에 버려진 폐교가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예를 들 수 있다. 강정진, 심재천, 진창윤, 이기홍 등 지역 작가들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효를 다한 학교를 다문화 카페, 미술체험장, 다목적 전시실 등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주 여성을 위한 '다문화 카페'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캐릭터를 활용해 간단한 차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게 한 문화 사랑방으로 조성됐다. 작가들은 탁자에서부터 전등갓, 벽장식, 바닥의 매트까지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그림1)

다문화 카페 옆에는 지역 예술가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의미술 놀이터'를 만들어 이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한 점도 돋보였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안산의 원곡본동에는 다문화 구성원들을 위해 조각 및 설치 작품을 제작하였다. '프로젝트 무브먼트' 소속 작가들은 이 지역 주민의 70%가 외국인이며 20여 개국 출신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광장 중앙에 다문화를 상징하는 지구본과 지도를 표기하는가 하면, 계단에 각 나라의 언어로 국가 명을 새겼고 또한 아트벤치를 제작, 설치하였는데, 광장의 특성에 걸맞게 'We are the One'이란 글자로 된 돌 의자를 만들기도 했다. 그들은 또한 공원을 찾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초상화를 그려 설치하였다.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접근한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개최된 '쉘터 포 소울'(Shelter for Soul)전을 들 수 있다. '국제전문인 도시건축봉사단'(BAMI)이 중심이 되어 주최한 이 행사에는 59개국에서 5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방글라데시의 샤민 이란핫산의 작품이었다. 작가는 자신의 방을 갖지 못한 방글라데시 빈민촌의 한 소녀를 위해 단출하지만 쓸모 있는 공간을 구상하였다. 설치 공간은 간단한 놀이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고 독서와 그림을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까지 배려하였다.(그림 2)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지적 장애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등을 위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 이 전시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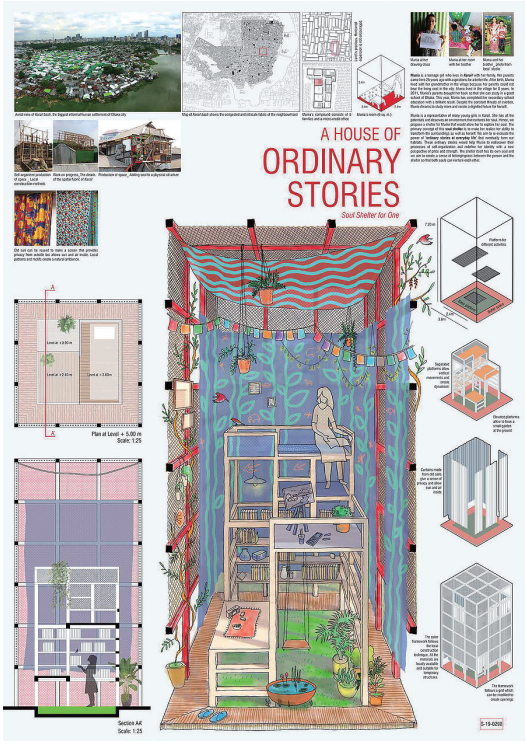


그림2) 쉘터 포 소울_에 출품한 방글라데쉬의 샤민 이란핫산의 설계도

술가가 다문화 사회의 현실에 접근할 때 어떤 입장과 관점에 서야하는지 뚜렷이 보여주었다. 말하자면 한 영혼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피부색과 국경을 초월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계기가 된 셈이다.

다문화 시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나그네들을 환대했던 것처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렘브란트(Rembrandt)는 일찍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Abraham Serving the Three Angels,1646)(그림3)을 제작했는데 손님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기쁨을 묘사하였다.

아브라함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이 하인처럼 겸손하기만 하다. 죠수아 W. 지프

그림3) Rembrndt,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 유화, 1646

(J. W. Jipp)의 말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는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것의 토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찾아온 한 영혼 한 영혼을 훈훈함과 겸손함으로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이라고 믿는다.

한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국가 등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우리들로서는 그들에게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레슬리 뉴비긴의 말처럼, 복음 전파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에 호소해서 반응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의 훌륭한 모델을 아브라함의 환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미술〉,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한국미술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최은영 (실천여성회 판 공동대표)

성서와 다문화! 오랜 역사를 가진 '성서'와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단어, '다문화'가 분명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이자 윤리적인 기초가 되어온 성서는 다양화, 다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 역시 최근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주의 문제, 즉 한국의 다문화 · 다인종 · 다종교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1]과의 소통, 평화로운 공존을 고민하며 이 책의 저자로 함께 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모두 캐나다와 한국이라는 두 삶의 자리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가르치고 있는 여성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다. 각자 다른 이주의 경험을 성서의 읽기를 통해 찾아내고 다음 세대와 함께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쓴 책이다.

성서에는 성 차별, 계급 차별, 인종(국가) 차별 등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인간 모두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주신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이 아닌 차별과 배타적인 성서 해석으로 이해해 온 면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여러 차별의 상황에 놓여있는 다문화의 현실 속에서 오늘날의 인권이나 정의, 평화와 연결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부제로 정한 '다름으로 일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 7명과 신약 5명 등 성서 전체에서 선정한 인물들[2]의 공통점은 경계를 넘어 이주의 상황을 경험했고, 당시 주목받지 못한 비주류 여성들이라는 것이다. 책에서는 그들을 단순히 약자, 수혜자의 위치만이 아닌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각 장은 총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부분은 주인공이 나오는 성서 본문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둘째 부분에는 성서의 인물을 주로 1인칭 관점인 '독백'이나 대화체를 통해 각각 이주의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고 새로운 소망을 드러낸다. 셋째 부분은 이주 '사례'를 신문기사에서 찾아 그 내용을 소개하며 이해를 돕는다(책은 2013년 발행되었기에 다소 시대감이 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은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마지막인 넷째 부분은 독자들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인의 실천을 '질문'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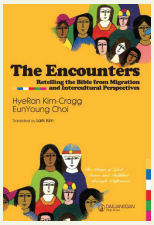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 김혜란, 최은영(지은이) | 대장간 | 2013

성서의 사람들 역시 이주를 경험했고 다문화 사회를 살았다는 것은 신선한 성서 읽기라고 본다. 이들이 가졌던 상황이 그리 순탄하거나 안전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 안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대부분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를 살리고 안정시켰다.

하나의 예로, 하갈(창세기 16, 21장)이 비록 사라의 여종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집트 여성 노예라는 '성, 계급, 인종의 삼중 차별'(Phyllis Trible)을 넘어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새 민족을 허락받은 이주 여성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정적이거나 배타적인 이중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주의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주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시민으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은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 책



을 읽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는 실천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영문번역판인 〈The Encounters-Retelling the Bible from Migration and Intercultural Perspectives〉도 추천한다. FAITH & LIFE

---

1) 2019년 3월말 통계월보(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은 2,379,80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 하갈, 다말, 십보라와 아들, 라합, 룻과 나오미, 나아만의 여종, 요나를 지켜본 니느웨성의 여성, 아기 예수와 부모, 가나안 여성, 사마리아 여성, 루디아, 브리스길라이다.

글쓴이 최은영

계명대학교에서 성서신학(구약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으며,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저자이다. 성서를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여성, 다문화, 주변부로 확대해 읽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지평이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확장해 가는데 힘쓰고 있다. 그동안 여러 대학에 출강했고, 현재 실천여성회 판 공동대표, 성서대전 실행위원,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교육위원, 대전 현암장로교회(예장통합) 집사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지침서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목사)

일제 치하의 뼈아픈 역사처럼, 주권을 잃어버리면 영토와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화려한 교회 건물과 수많은 성도 수를 자랑한다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평'(미슈파트)과 '정의'(체다카)다(시 97:2; 렘 9:2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었다(창 18:18-19). 다윗 왕의 통치 원리도 공평과 정의였고(삼하 8:15),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도 화려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신앙 공동체에 대한 질타였다(사 1:16-17; 5:7; 미 6:6-8).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다(렘 23:6-7).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돌봐야할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탈탈 털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종교지도자들의 탐욕과 불의로 인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눅 20:45-21:6).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부채 탕감과 노예해방, 토지에 대한 권리 회복이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안식년과 함께 선포되는 희년(Jubilee)에 행하는 '주의 은혜의 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희년 선포였다(눅 4:18-19).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전한 '복음'의 원어는 '유앙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이다. 이를 직역하면 '희소식'(喜消息) 혹은 '희음'(喜音)이다. 그런데 구한말에 이 단어를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인 '복음'(福音)으로 번역했다. 성경 번역 과정에서 중국에서 번역한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지만, 구한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가난과 억압, 질병과 고통 속에 살던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유불선과 샤머니즘의 오랜 토양 속에서 그렇게 번역함으로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으로 전락하기 쉬운 토대가 됐다. 물론 희년(禧年)이란 단어에서도, 한자가 '기쁠' 희(喜)가 아닌 '복' 희(禧)로 사용한 한계가 있지만 희년은 억눌리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주의 은혜의 해,' '기쁨의 해'를 뜻하기에 '복음'의 본질적 의미가 바로 '희년'임을 알 수 있다.

〈희년〉은 희년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와 교회사를 함께 관통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한다. 희년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동안 희년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실천해 온 10명의 학자들과 희년 운동 실천가

〈희년〉 | 김유준 외 8인(지은이) | 홍성사 | 2019

들이 함께 만들었다. 1장에서는 희년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특히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도 엿볼 수 있다(김회권). 2장에서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희년법 개념을 분석해 주었다(장성길). 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두 기둥,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을 구약의 희년법을 통해 보여준다(김근주). 4장에서는 구약의 희년법 정신이 어떻게 신약에서 계승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준다(신현우). 5장과 6장에서는 초대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나타난 희년 사상을 교회사학자의 시선으로 추적했다(김유준). 7장에서는 희년을 기반으로 한 사회정의론(토지정의, 기업정의, 노동정의, 노사정의)이 소개되어 있다(남기업). 8장에서는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제도와 평등한 토지권 보장을 위한 '좌도우기'(左道右器)의 이념으로 희년의 '지대공유' 사상을 제시해 준다(김윤상). 9장에서는 평화통일을 내다보며 희년으로 본 북한 '상생발전' 모델을 소개해 주었다(조성찬).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채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희년 은행을 통한 '희년 실천' 사례를 부록으로 소개해 주었다(김덕영, 이성영).

그동안 일반적으로 희년에 대해 구약의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많은 율법 조항의 하나 정도로 치부해왔지만, 책 〈희년〉을 읽어보면 희년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가르침임을 깨닫게 된다. 희년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땅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한 단순한 경제체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구체적인 성경적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희년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밝히 드러내야 할 복음의 본질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희년을 50주년 기념행사의 상징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며 그 가르침의 본질은 외면하고 축소했지만 이제는 희년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희년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안내서로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온전한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실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이다. 연세대 신학과와 동 대학원(석사), 교회사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온누리교회 전도사, 연세대 학생선교사역자를 역임했고, 저서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 연구〉 등이 있다. 현재 연세대/한신대 교회사 겸임교수, 연세차세대연구소 소장이며, 캠퍼스 사역 전문가로서,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품고 교회사 연구를 통해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희년 사상'을 꾸준히 전파하고 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유평원 (국민대 법학과 석사과정)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야고보서 2:26)"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능한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 많은 신학적 논쟁과 교회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복음적 메시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복음적 메시지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고보서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약 2:14~24)고 말씀한다. 이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는 말씀도 있다.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삶은 믿음인가? 행함인가? 성경은 둘 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 행함을 통해 믿음이 검증되는 복음적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편협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천국복음을 자칫 싸구려 천국행 티켓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우리는 얼마 전 서울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남한 땅에 목숨 걸고 내려와서 아사라니. 뭐가 문제였을까? 사람들은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부의 잘못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는 우리 교회들의 책임도 크다. 이웃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런 문제에 관하여 명쾌하게 답을 제시한 쉐인 클레어본(Shane Claiborne)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아바서원)라는 책을 소개한다. 책의 원 제목은 〈저항할 수 없는 혁명〉(The Irresistible Revolution)이다. 제목부터가 도전적이다. 책의 내용 또한 명쾌하고 시원하다. 더불어 거룩한 부담감과 불편함도 갖게 한다.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평범한 급진주의자'이다. 그가 보여주는 믿음에 기초한 혁명적이고 실천적인 삶, 가난한 이웃들과 기꺼이 함께 하는 모습은 필자에게 많은 도전과 감명을 주었다.

이 책은 지금까지 필자가 읽었던 신앙서적들과는 많이 달랐다. '자유시장 경쟁체제'의 결과인 빈부격차와 가난의 문제, 환경파괴와 전쟁, 총기사고 등 각종 범죄들에 대한 복음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 쉐인 클레어본 (지은이) | 배응준(옮긴이) | 아바서원 | 2016

진실되고 실천적인 삶으로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고스란히 녹여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온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결코 분리되면 안 되는 것들을 종종 분리시킨다. 믿음과 행위. 영혼 구원과 구제 행위. 예수님과 정의 등등.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가위의 두 날과 같다. 둘이 함께 작동할 뿐이다 … 그릇된 이분법을 만들지 말고 통전적인 복음을 찬성하도록 하자. 통전적인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늘과 땅을 모두 포용하고, 영혼 구원과 구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필자는 휴전선 북쪽 지역에서 태어나 1990년대 중반 아사의 위기를 겪으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또한 그곳에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 줌의 옥수수를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을 때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한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밀가루 한줌의 기적과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부유한 남쪽에서 살고 있다. 약 2년 전 중국에서 함께 생활했던 한 조선족 형제의 긴급한 경제적 요청을 차갑게 외면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가 그 사건이 기억나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와 나눔, 최근의 사회적 이슈인 빈부격차와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 정의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세속에 물들어 복음의 민감성을 상실한 채 욕심을 따라 살았다. 만약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영혼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면 참으로 심각해진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마음속에서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시점에 이 귀한 책을 선물 받았다.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의 나의 고민과 갈급함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응답이라고 생각되었다. 남은 생애를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일독할 것을 적극 권한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다. 이제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가 아닐까? FAITH & LIFE

글쓴이 유평원

국민대 법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북한 출신으로 중앙대 행정학과(법학 전공)를 졸업했으며, 현재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서울 세빛교회(예장통합) 성도이다.

아브라함 카이퍼

추천 : 웨슬리 웬트어스 (Wesley Wentworth) 선교사
번역 소개 :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저자 리차드 마우(Richard Mouw, 1940~)는 미국 칼빈 대학교에서 17년 동안 철학 교수, 풀러 신학교에서 기독교 철학과 윤리학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다. 특별히 그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가 주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yuper) 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1960년대의 혼란 속에서 공공 생활에 대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들에 처음 이끌렸다고 한다. 또한 흑인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굵직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을 찾기 위해 애쓰던 도중에 카이퍼의 칼뱅주의 강연을 발견했고, 그것과 함께 공공 생활에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힘찬 비전을 발견했으며, 그 이후로 그것이 그를 인도하는 지침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간략하지만 친밀감이 가득한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소개서'에서 저자(마우)는 그리스도인의 '문화 제자도'(culture discipleship)의 주요 사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는 영역 주권, 대립, 일반 은혜 등에 대한 카이퍼의 견해들이 포함된다. 아울러 카이퍼의 사상을 종교적 문화적 다원주의, 기술, 이슬람의 도전 같은 21세기의 문제들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업데이트 하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수정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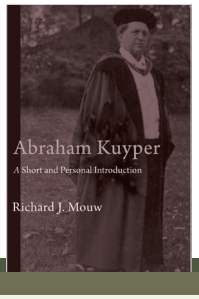
추천의 말들

제임스 스미스
(James K. A. Smith, 미국 칼빈 대학교 철학교수)

"이 놀라운 작은 책은 놀라운 업적을 이룬다. 즉 이 책은 비록 간략하고 쉽게 읽히지만 카이퍼의 전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카이퍼의 조각들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카이퍼의 한 '측면'에만 주목하면서, 그의 문화 신학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강조를 간과하거나, 일반 은혜를 취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립은 무시한다. 그러나 마우는 자신의 전형적 위트와 따뜻함으로 카이퍼의 다면적 풍성함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다."

존 보울린
(John Bowlin, 프린스톤 신학대학원 철학과 기독교 윤리학 교수)

"카이퍼의 문화 신학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개, 신칼뱅주의의 유산에 대한 개인적인 회상, 21세기를 위한 카이퍼의 선집(aggiornamento)으로 구성된 리차드 마우의 이 책은 보석이다. 이 책은 신중한 숙고와 공감 속에서 카이퍼의 저작을 다루지만, 동시에 질문을 던지고 비판적이기도 하다. 이런 조합이 이 책을 카이퍼의 사회 사상에 접근하기 위한 완전한 소개서



〈Abraham Kuyper〉 | Richard Mouw | Wm. B. Eerdmans Publishing | 2011

로 만든다."

존 스탁하우스 교수
(John Stackhouse, 캐나다 리전트 대학교 신학 & 문화 교수)

"리차드 마우의 이 책은 저술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다. 즉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더 잘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위대한 사상들을 우리의 상황에 더 잘 들어맞는 개념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성취했다. 이것이 이 작은 책에서 성취된 위대한 일이다."

Books & Culture(미국 서평 저널지)

"마우가 카이퍼를 다루는 작업에 있어서 놀라운 점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한번 보기만 하면 잊을 수 없고, 삶이 변하게 하는 비전으로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유혹해 가는' 방식에 있다. … 놀라운 책이다. … 만약 독자들이 마우가 다다른 결론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돌덩이 같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 우리는 다시 한 번 마우에게 큰 빚을 졌다."

Christian Scholar's Review(미국 학제간 학술 저널지)

"카이퍼의 신학을 통하여 직접 변화를 경험한 사람, 또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문화에 더 폭 넓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카이퍼의 사상에 대한 전체적 개론을 소개받기 원하는 사람은 마우의 이 책에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Journal of Reformed Theology(신학전문 학술지)

"이 책의 중요성은 마우가 카이퍼의 전통을 복음주의 세계에 소개한다는 점에 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마우보다 나은 '대사'(ambassador)는 없다. 진정한 에큐메니칼 저자인 그는 다른 기독교 전통들의 강점들을 찾아내고 자기 전통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크도다〉(IVP), 〈겸손〉(IVP), 〈구원과 윤리〉(대장간), 〈성령과 윤리〉(생명의말씀사) 외 다수가 있다.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 스트레스와 공감능력,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정우 (광운대 교목, 경희대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현재 10만 명 이상이며, 최근 10년간 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유학생에게 중요한 변인을 개별 평가하거나 변인 간의 단순한 관계성 및 집단 간 차이를 밝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의 목적이 중국 유학생의 공감 능력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고, 공감 능력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특별히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역할과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분석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저자는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전주 지역 등 총 14개 학교에서 399명의 중국학생(4년제 대학교 언어교육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주 대상자로 연구하였다. 설문지는 총 550부가 배포되었고, 그 중에서 392명에게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회수된 설문지 중, 표본의 가치가 있는 314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학교생활 만족', '문화적응 스트레스', '공감 능력' 등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 사이의 상관관계는 중국인 여자 유학생 집단이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 남자 유학생 집단은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고 할 수 없다. '학교생활 만족'과 '공감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인 여자 유학생 집단이 인지적 공감을 많이 할수록 높은 학교 생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 남자 유학생 집단은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학교생활만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면 해당 변인은 중국인 여자 유학생 집단에서만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상담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중국인 여자 유학생의 학교생활 만족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 정서적 공감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많아져 '학교생활 만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국인 여자 유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지적 공감을 증진시켜주는 개인 상담 혹은 집단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상담 기법 적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루는 것이 중요해진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10/26, 성균관대 경영관 & 호암관)의 교수/일반분 '교육B'분과 발표 논문이며, 전체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다움에 대하여

김병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인간이 마주하고 경험하는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 규정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시대적으로 보자면, 기술 기반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교육적으로 보자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존재, 인식, 교육철학, 방법 등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근자에 떠오르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존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해체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등장하여, 인간과 인간 외 존재들의 공존을 그 중심에 둔다. '포스트휴머니즘'과 함께 또 하나의 물줄기가 있는 데,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존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라기보다 강화이며, 기술의 힘을 통해 죽음까지도 정복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개념이지만, '포스트휴머니즘'(트랜스휴머니즘을 포함한)이 규정하는 인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포스트휴머니즘'에 의하면, 인간(기계를 포함한)은 인간 외 존재들과 수평적이다. 둘째, 인간은 진화하며 진화해야 한다. 셋째, 인간은 기술을 통해 개선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위와 같은 인간 이해 앞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바라보고 교육해야 할까? 사실 인간은 기술로 개선되어야 할 존재가 아닌 하나님 형상의 회복 즉,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이런 관점에서 '중생'은 여전히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이 말하는 공존은 어떤가? 이는 인간 외 존재와의 수평적 구조를 제외한다면,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타인 존중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트랜스휴머니즘이 말하는 영원한 몸은 어떤가? 이 부분은 기독교 교육이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몸이 존재하는 일상, 하나님 형상으로서 일상을 구성하는 다스림을 교육학적으로 좀 더 깊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해는 교육에 있어서 시대를 초월한 절대성과 시대의 적실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님 형상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이 풍성함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도 잘 드러나길 소망해 본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10/26, 성균관대 경영관 & 호암관)의 대학원생부 '교육B'분과 발표논문이며, 본 학회에서 〈새로남 청년 논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체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월터스토프의 정의론

최태연 (백석대 기독교철학 교수)

윤리학과 정치철학의 중요한 주제인 '정의'(justice) 문제를 기독교철학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한 현대의 기독교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1932~)를 언급하고 싶다. 1980년대 이후 이 주제를 다룬 그의 연구서는 다섯 권에 달한다. 그의 자전적 고백에 의하면, 정의에 대한 관심은 1975년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부터였고, 특별히 1980년 이후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이 논문은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의 윤곽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해 보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 필자의 월터스토프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라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다만 그의 관련 저서들을, - 〈정의: 옳음과 그름〉(Justice: Rights and Wrongs), 〈사랑과 정의〉(Justice in Love), 〈하나님의 정의〉(Journey toward Justice: Personal Encounters in the Global South) - 중심으로 '정의론'의 의미와 현대철학에서의 위상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연구 결과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에 다음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생득권'(inherent rights)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월터스토프는 '인권'(human right) 개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점에서 그의 정의론은 보편윤리에 기초를 둔다.

둘째,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의 보편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그 강조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의 정의론은 '이상세계를 위한 기본적 정의론'을 추구하는 전통과 거리를 둔다. 이 점에서 월터스토프는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의 저자 파커 파머(Parker J. Palmer)나 〈타인의 고통〉(Regarding the Pain of Others)의 저자 수잔 손택(Susan Sontag) 등의 약자 중심의 윤리적 입장에 접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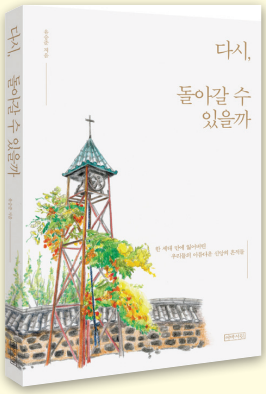
셋째,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은 처벌과 용서의 문제에 대해 기독교 현실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은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세계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약자 중심의 윤리학이 결합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정의론'에서도 독특한 입장인 그의 논의를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발전적으로 보완할 여지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10/26, 성균관대 경영관 & 호암관)의 교수/일반부 '철학'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 세대 만에 잃어버린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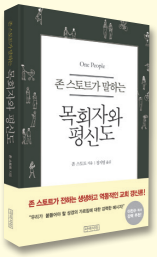
208쪽 | 신국판 | 올 컬러 | 15,000원

한국 교회의 잃어버린 날들을 찾아
유승준 작가와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유승준

1964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했다. 정신세계사, 디자인하우스, 청림출판 등을 거쳐 가나북스 대표로 일하며 오랫동안 책을 만들어 왔다. [안동교회 이야기], [천국의 섬 증도], [태양을 삼킨 섬],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등을 집필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5년 12월 25일 KBS 1TV를 통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방영된 뒤, 다음 해에는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영화로 개봉되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한 존 스토토의 생생하고 명쾌한 메시지!



존 스토트가 말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ONE PEOPLE
176쪽 | 4*6판(양장) | 12,000원

존 스토트의 로마서 5-8장 강해
새 사람 Men Made New
184쪽 | 4*6판(양장) | 12,000원

책 만드는 협동조합 아바서원

시냇가에 심은 나무

_ 더세움교회 기독교 세계관 양육 프로그램

김지웅 (더세움교회 전도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김천 더세움교회(정통령 담임목사)에서 8년간 진행해온 기독교 세계관 양육 프로그램이다. 신앙과 삶의 간극으로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모든 영역을 바르게 바라보고 생각하여 마침내 신앙과 삶의 일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기독교 세계관 입문 과정

10주 과정으로 '기독교 세계관', '사회 책임', '문화', '일상', '직장', '교육', '소명' 등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과 맞닿아있는 현실적인 주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풀어낸다. 또한 관념을 뛰어넘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발적 불편 실천'과 '독서 과제',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현실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조별 모임

10주 동안 3번의 조별 식사와 1번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조별 나눔 시간에 미처 이야기 하지 못한 내용들을 조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풍성한 나눔을 통해 영적인 우정을 차곡차곡 쌓아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로 세워 간다. 조별 프로젝트는 마지막 시간에 진행되는데 그동안 배운 기독교 세계관을 총 망라하여 조별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영상, PPT, 찬양 등으로 발표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기독교 세계관 심화 과정

성도들이 입문 과정을 거치며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주제를 선택한다. 채택된 내용은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설문 결과 '기독교 세계관', '일과 소명', '재정'에 대한 필요가 많았고, 심화 과정 1기는 '재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독서 나눔

10주간 매주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구소장)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일상다반사〉를 한 과씩 읽고 솔직한 나눔을 적어서 제출한다. 제출한 나눔은 담당 교역자가 교정하여 돌려준다. 세상의 가치관에 알게 모르게 젖어 있던 생각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바르게 고쳐나간다.

더세움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강조되는 키워드는 기독교 가치관, 일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공동체이다. 개인의 신앙, 교회 안에서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각 영역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도록 훈련하는 양육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온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 되어 세워지도록 새로운 기독교 세계관 양육을 준비하고 있다.

더세움교회 기독교 세계관 양육 프로그램 수료 소감문

하나님께만 물으면 되는 삶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목회자셨고,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나와 대학교까지 기독교 학교에 다녔다. 기독교 온실에서 산 것과도 같은 내 삶은 내게는 가장 익숙한 삶이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할 때마다 혼란스러웠고, 나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을 회피하기 바빴다. 직면하기보다 나중에 고민할 숙제로 미뤄두는 게으른 선택을 했다.

그런데 올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배 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회피했던 세계관적 고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혼돈한 세상을 살아갈 자녀를 양육할 때, 엄마인 내가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때 마침 개설된 '더세움교회'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과정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기독교 세계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와 독서 과제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나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걸 느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내 삶에 분명한 도전을 주었다. 나는 요즘 출산 후 커리어에 대한 세계관 충돌을 겪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찾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교육을 받고 치열히 쌓아왔는데, 정신차려보니 김천이라는 낯선 도시에 와 임산부가 되었다. 임신에 대한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이 아이를 낳으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버려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몰려와 불안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것인가 싶어 허무했고, 가정을 건강히 세우는 일 외에도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다.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못했다. 왠지 하나님은 다 포기하라고 할 것 같아 무서웠다. 불안함, 허무함, 죄책감, 두려움으로 진로에 대한 나의 세계관은 오염되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진로와 소명' 강의에서 "우리 인생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시끄러웠던 내 마음을 고요히 만들었다. 내가 괴로웠던 것은 내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크게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내 인생을 가족들이,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선생님들이, 전 직장 동료들이 보면 어떨까? 내 인생이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이진 않을까?"와 같은 질문들이 하나님을 향해 던져야 할 질문을 막고 있었다. 이를 직시하니 내 인생의 청중이신 하나님께만 물으면 된다는 사실이 자유함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과거의 나는 세계관의 충돌을 마주했을 때 도망치기 바빴는데,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담대히 선택할 용기가 조금은 충전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 과정에서 때로 흔들릴 수 있고, 타인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함께할 '더세움 공동체'가 있는 이상 기독교 세계관이 내 삶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글쓴이 이다정

현재 김천 더세움교회 성도이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들을 통해 바른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

제3회 기독교세계관학교 개최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11일(토) / **장소** : 삼일교회 C관 (대중교통: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3분)

주제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로 살기"

대상 : 선착순 120명 (사전등록: 포스터 Q.R. 카드 사용 또는 https://scw.worldview.or.kr)

* **주제강연** : 여는 강연: '왜 기독교세계관인가?'(김종철 '어필' 변호사 & 박진숙 '에코팜므' 대표)
주제 강연: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바로살기' & 질의문답(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
닫는 강의: '세계관 – 세상 바로살기 현장으로'(박동열 서울대 교수)

* **선택강좌**: 성인경 (라브리 공동체 대표) 외 17명, 14강좌 개설(* 자세한 안내: 동역회 홈페이지 참조)

주최 : 한국 라브리 공동체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의 : 02-754-8004, 010-3222-6567)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회 & 정기총회 개최

일시 : 2020년 2월 21일(금) 오후 4:00(이사회) & 6:00(정기총회)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대상 : 동역회 정회원(* 안내: 동역회 홈페이지 & 문의: 02-754-8004, 010-3222-6567)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 :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7:30 / **장소** : 상암동 ES빌딩 8층 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학술지 〈신앙과 학문〉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 자격유지 심사 통과: 2020년 1월부터 3년간 등재학술지 자격유지 확정

2020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0:00~ 오후 6:00 / **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 사 김성수(前 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교수)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까나야 대표)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성경(VIEW 실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주)렘퍼스 이사)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손병덕(총신대 교수) 이상민(서울국제고 교사)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윤헌준(서울대연구원)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문석윤(경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이호선(국민대 교수)

총무 이상무(평택대 교수)

감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임춘택(경남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병덕(총신대 교수)

편집위원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종훈(성신여대 교수) 손창민(University of Virginia Tech 교수) 우종학(서울대 교수) 윤매옥(한일장신대 교수) 이명헌(인천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현은자(성균관대 교수) 현창기(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Paul Lim(Vanderbilt University 교수)

VIEW(전성민 대표)

- VIEW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 / 졸업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Graduate Diploma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 / 졸업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우신 사람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하고 졸업할 수 있다.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2학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온라인 세계관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가정 사역**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기독교세계관 인문고전학교)는 '기독교와 윤리'라는 주제로 존 스토트의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공부하고 있다. 겨울방학 때는 '기독교와 철학'을 주제로 공부할 계획이다.
- **교회 사역** : '충주 함께하는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에 열린 '어린이세계관학교'에서는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지도자 교육과 청소년세계관학교'는 '나니아로 떠나는 기독교세계관 여행' 지도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삼일교회, 요한서울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요!' 지도자 교육과 어린이세계관학교가 종강했다.
- **캠프 사역**: '두란노바이블칼리지'의 '나니아로 떠나는 기독교세계관 여행–은의자 & 마지막 전투 세미나'가 종강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과목이 진행 중이다. 또한 2학기부터 청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 세계관 교육을 시작해서 진행 중이다.

  *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의 출판을 꿈꾼다.

www.cupbooks.com 문의 : 02-745-7231, cupmanse@gmail.com

- 신간 소식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 박세혁 옮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자 정수
성령의 열매에 대한 탁월한 지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자 정수이며, 성경적 삶의 초점이자 비밀이다.

〈생각, 하나님 설계의 비밀〉(의학박사 티머시 제닝스 지음 | 윤종석 옮김)

사고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성경적 모델!
사고의 복합적 차원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논한 책은 처음이다
다행히 이것은 이긴 싸움이다!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 낮은 자존감, 막연한 죄책감, 용서하지 못함, 원한과 적의, 의존 상태, 해로운 관계 습성,
이런 싸움이 수많은 사람의 사고 속에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 책은 그 해결의 기제를 담고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9년 9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3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780,000
	임원회비	470,000		기타급여	400,000
	일반회비	4,085,000		소계	6,180,000
	기관후원금	2,8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000,000
	월드뷰후원금	0		사무실관리비	0
	사무실후원금	0		통신비	115,280
	CTC후원금	90,000		우편료	171,400
	VIEW후원금	2,060,000		소모품비	28,500
	기타후원금	2,000,000		비품	0
	월보구독료	634,000		식비	0
	학술지원금	0		복리후생비	684,830
	세계관사역지원금	0		퇴직연금	0
	기타	0		컴퓨터	0
				교육비	0
				회의비	91,160
				회계용역비	220,000
				여비교통비	110,000
				서무비	156,200
				기타(지급수수료)	122,914
	소계	12,232,000		소계	3,700,284
기타수입	일반이자	0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0
	법인이자	0		도서구입비	0
	법인세환급금	0		CTC후원금	69,120
	기타수입	0		VIEW후원금	1,942,025
	기금차입	400,000		학술지원금	0
	결산이자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예수금	353,500		10선컨텐츠	0
				소계	2,011,145
			출판(회지)	인쇄비	0
				발송비	626,980
				소계	626,980
			기타	웹진원고료	0
				CUP기금적립	400,000
				세금	67,270
				잡비	0
	소계	753,500		소계	467,270
	세계관일반등록	0	기타	세계관강사료	
	세계관기타수입	0		세계관행사준비	60,000
	소계	0		소계	6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학회행사수입	0		학회장소사용료	0
	자료집판매	0		학회자료제작비	0
	학회지판매	0		학회홍보및기타	0
	학술지심사비	420,000		학술지인쇄비	0
	학술지게재료	300,000		학술지발송비	0
	저작권료	0		학술지심사료	0
	학회기타수입	0		학회조교비	0
	소계	820,000		소계	0
당월 수입액		14,062,500	당월 지출액		13,045,679
전월 이월액		29,135,258	차월 이월액		25,645,548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30일 마감)

회원후원

3천 김성권, 3천5백 곽도명, 김봉현, 김샛별, 김샛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이지연,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심,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제, 박승룡, 박천규,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유충열, 유화원,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구,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인수, 이종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헌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김동현, 김지현, 박상균, 방선기, 백예은,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1만 가용길, 강민창, 강연정, 강은정, 강은주, 고길현, 고선옥, 고웅재, 고현경, 곽정임, 권경호, 기민석, 길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홍, 김남진, 김농오,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보경,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옥, 김상일, 김성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중, 김수빈, 김수진, 김승진,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용석,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인준,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좌남, 김주영, 김지곤, 김진성, 김진희,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숙,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섭, 김효숙,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복애, 박승호, 박시운, 박영주, 박원곤,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종철, 송철호, 송태상, 송현미,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진호,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지황, 유치상, 유해무, 윤상헌,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지혜, 윤태형, 윤헌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권철,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헌,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환,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성실,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중섭, 이지연, 이진희, 이춘성, 이해리, 이행로, 이환일,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구, 정경미, 정경식,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지,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현,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회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선하,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연무, 최영, 최은정, 최종빈, 최진우,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헌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화, 홍정석, 홍종인, 황기철, 황도웅,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진영규, 2만 강용란, 김기현, 김용식, 김은정,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진호, 류진호, 박기모, 박상희, 박흥식, 배성민, 빛과소금교회,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윤명심, 이건, 이기서, 정동섭, 정훈, 허정도, 황혜정, 2만2천5백 박성태, 3만 김경민, 김남중, 김동원, 김방룡, 김태진, 문석윤,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오의석,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용준, 최현식, 추태화, 황영철, 황정진, 4만 우병훈, 5만 김종우, 김택호, 박정심, 서진희,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정은애, 한윤식, 현은자, 6만 가톨릭대학교신학대학도서관, 박미화, 석종준, 수원가톨릭대학교도서관, 호남신학대학교도서관,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손봉호, 손정엽, 신국원, 윤완철,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나용균, 100만 이경숙

계 7,674,000원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고양제일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서로사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부천참빛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바울교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200만 ㈜이상네트웍스

계 4,900,000원

전체 12,574,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주)렘퍼스 이사,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前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장,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날 대학교, Ph.D, 정회원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윤헌준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안양대 교수,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셔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장
	윤지혜	간사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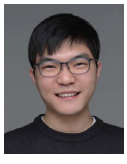
박영주

박진규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헌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후원정보를 기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전화해주십시오. 사무국 : 02) 754-8004

2020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20년 2월 21일 (금) 저녁 6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대상 : 정회원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